

■ 설 앞두고 광주 양동시장에 가보니

“올 대목엔 돈 좀 만져 보겠소”

“먹고 살기 힘들다고는 해도 설이 다가오니 시장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네요. 올해는 돈 좀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고소한 참기를 냄새가 진동하는 방앗간에는 뽀얀 훈김을 내뿜으며 빨아져 나오는 가래떡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사과와 싱싱한 생선 등 각종 제수용품이 한 톨이라도 싸게 사기위해 흥정을 벌이는 손님들의 모습에서 설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 대형마트에 손님을 빼앗겨 한산하기만 했던 전통시장이 설 대목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상인들은 지난해보다 서둘러 상품을 확보해 놓는 등 오랜만에 찾아온 명절 대목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쳐났다.

홍어 등 각종 수산물도 20년째 팔고 있는 장덕상회 김모(여·59)씨는 “기대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지난해 보다 20% 가량 매출이 늘었다”면서 “최근 홍어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150마리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전과 생선 등 차례·제사 음식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풍년상회 조모(여·39)씨는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면서 번거롭게 집에서 요리를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차례 음식을 사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면서 “맛별이 부부가 많다 보니 서둘러 차례음식을 사는 젊은층도 많다”고 귀띔했다.



설을 앞둔 7일 오후 양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산물·과일가게 작년보다 20%↑... 모처럼 활기

삼겹살 등 정육점은 대형마트 저가공세에 '울상'

올 초 한파와 폭설로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20%가량 올라 장사를 거의 하지 못했던 정과상들도 모처럼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의정(40)씨는 “과일 가격이 오르다 보니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좀 더 싼 곳을 찾게 되고, ‘백화점 보다는 싸다’며 선물용 과일 상자를 5~10박스를 한꺼번에 사가는 사람들도 있다”며 “택배 서비스를 시작해 손님들이 더욱 편하게 과일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소비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꼭 필요한 양 만큼만 사고, 일부 품목의 경우 대형마트의 저가 할인판매 탓에 울상이었다. 시장 입구에서 나물을 팔고 있는 노점상 박덕래(여·49)씨는 “설 음식이라는 게 친지나 이웃들과 나눠 먹기 위해 넉넉하게 장만해야 하는데, 요새는 차례상에 올릴 양 만큼만 사간다”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은 늘었다고는 하지만 ‘설 대목에 한 뉘 쟁긴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또 돼지고기의 경우 대형마트들이 한동안 가격을 턱없이 낮춰 팔면서 해당업종 상인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고 속앓이를 했다.

오복식육점 김모(여·63)씨는 “올 초부터 ‘대형마트들이 돼지고기를 100g에 980원씩 팔고 있는데, 우리는 인건비와 월세를 생각하면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으로 시장 상인들만 죽을 맛이다”고 푸념했다.

닭집을 운영하는 최지선(여·38)씨는 “마트에서 싸게 팔고 있는 닭은 시장보다 크기가 작은 닭인데도 소비자들이 무조건 가격만 비교해 보고 마트로 가버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차례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5% 싸다

4인 기준 21만7,688원 VS 29만 744원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에 쓸 식재료를 사면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보다 약 2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설을 일주일 앞둔 5일 설 차례상 차림 비용(4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는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사 직접 조리할 때와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때, 인터넷 쇼핑

과 같은 곳에서 차례상을 통째로 구입할 때 등 4가지 경우로 나눠 이뤄졌다.

차례상을 구성하는 음식은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 자문해 28개 식재료를 활용한 26개 음식을 선정했다.

그 결과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을 구입할 때가 가장 저렴해 21만7천688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이보다 25.1% 비싼 29만

744원으로 집계됐다.

조리된 음식을 살 때는 31만4천508원, 차례상을 일괄 구입할 때는 37만9천446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aT 관계자는 “국산 식재료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지만, 조기, 도라지, 고사리처럼 전통시장에서 잘 유통되지 않는 품목은 수입산으로 대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농수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설 성수품 물가 ‘하이킥’

정부 농수축산물 집중관리 불구 10개 품목 1주일새 10%이상 폭등

설이 다가오면서 성수품의 가격이 급등, 설 물가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지난해 25일부터 18개 농수축산물 가격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지만 절반 이상인 10개 품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와 무 등의 가격은 1주일새 10%가 넘게 폭등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지난 달 29일과 이달 5일 조사한 가격을 비교하면 배추가 가장 많이 올라 1포기에 2천373원에서 2천782원으로 17.2% 상승했고 무는 1개에 1천66원에서 1천187원으로 11.3% 올랐다. 배(신고·10개)는 6.3% 올라 2만3천819원, 사과(후지·10개)는

3.2% 올라 1만9천391원이었다. 또 쇠고기(한우 등심 1등급·500g)는 4.8% 올라 3만7천886원, 명태(냉동·1마리)는 2.2% 올라 3천280원이었다. 이 밖에 달걀(1.1%), 쌀(0.7%), 닭고기(0.6%), 고등어(0.3%)도 소폭이지만 가격이 상승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무사 올 최소 630명 선발

직장인 10명 중 6명 “임금 피크제 찬성”

광주 등서 4월25일 1차시험

국세청은 올해 치르는 제4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630명 수준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시험은 모든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자로 선발하며 이 기준에 630명이 미달하면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우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올해 시험부터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출제된다.

1차 시험은 오는 4월25일 광주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시행되며 2차 시험은 오는 8월8일 서울에서 치른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직장인 10명 중 6명가량은 월급보다는 고용안정을 더 중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최근 직장인 8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8%가 월급이 적어도 고용이 보장되는 일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고용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68.3%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Korea's Car Department Traditional Food Famous Designation) with a scenic background and product images.

Advertisement for '빅돌타인' (Big Doltain) featuring a large tree and various food product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